

경남 고성지역 벼 2기작 재배 실증연구(3년차)

정지현^{1*}, 이기순¹, 윤성희¹, 장은자¹, 정용주¹, 김진현¹, 백봉현¹

¹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서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경남 고성지역에서도 벼 2기작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상이 변화하고 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벼 2기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하기에 지역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도하고, 경험을 축적하고자 하였다. 지역농업인에게 벼 2기작 재배시 가장 적합한 벼 품종을 선발하였고, 재배기술을 실용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생종 벼 품종 기라라 397호(전기작)를 산파육묘와 포트육묘 후 재배하였다. 시비는 농촌진흥청 시비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재식거리는 30×18cm로 하였다. 전기작 산파, 포트육묘 파종은 2월 22일, 산파 파종은 3월 15일에 실시하였으며, 가온 유리온실에서 육묘 후 3월 28일 포트 기계이앙, 4월 2일에 산파 기계이앙을 하였고 7월 27일 수확하였다. 조운(후기작 품종)의 산파, 포트육묘 파종은 7월 19일 실시하였으며, 7월 29일 산파육묘, 8월 3일에 포트육묘를 이앙하고 11월 7일 수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기작에서 파종 및 육묘시기인 3월 초-중순경의 평균기온은 7~8°C 정도로 낮아 노지에서 육묘가 불가능하므로 가온 유리온실에서 육묘하였다. 2015년과 같이 3월 하순, 벼 육묘 중 갑작스런 저온과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일부 상자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출수는 육묘방법에 있어서 포트육묘와 산파육묘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 7월 27일에 수확하였는데, 수확량은 앞선 결과들과 같이 산파육묘가 포트육묘에 비하여 많이 생산되었다. 후기작은 육묘시 온도가 25°C 내외로 높아 벼가 빠른 속도로 자랐으며, 2015년 연구를 바탕으로 후기작 육묘일수를 단축시켜 불시출수 발생을 막았다. 후기작 품종인 조운의 출수일은 산파육묘 9월 7일, 포트육묘 9월 11일로 이앙일 대비 39일로 같이 나타났다. 수확은 11월 7일에 실시하였으며, 산파가 포트보다 수량이 높았다.

*주저자: Tel. 055-670-4834, E-mail. henia@korea.kr